



(윤석민)

호랑이, 거인 제물 삼아 연승 간다

하위권 탈출을 위한 필사적인 승부가 벌어진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일 롯데 자이언츠를 홈으로 불러들여 주말 3연전에 돌입한다. 650만 관중들파를 목표로 내세운 2010시즌, 흥행의 키를 쥐고 있는 KIA와 롯데의 시즌 첫 맞대결.

전국구 인기구단으로 통하는 KIA와 롯데의 대결에는 늘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대결에는 '끝까지 탈출' 타이틀까지 붙으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 KIA와 '시범경기 1위' 롯데의 출발은 좋지 못했다. 부상이라는

윤석민 오늘 마운드 출격... 주말 3연전 선봉에

최희섭·김상현, 이대호·가르시아와 '파워 싸움'

안초를 만나 마운드에 비상이 걸렸던 KIA는 가장 믿을 만한 투수 로페즈와 양현종이 순식간에 붕괴되면서 3연패로 시즌을 시작했다.

시범경기 신바람 행진을 했던 롯데도 상대 타선에 못대를 맞으며 3연패 중이다. 특히 올 시즌 약팀으로 꼽히는 넥센과 한화를 상대로 당한 3연패라 그 충격은 더 컸다.

KIA는 지난달 31일 유일하게 진행된 광주경기에서 간신히 첫 승을 신고하며 롯데를 따돌리고 7위에 올랐다.

시즌 초반이지만 어느해보다 4강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양팀은 초반 분위기 반전을 위해 치열한 주말 3연전을 예고하고 있다.

KIA는 1일 우천으로 취소된 삼성전 선발 윤석민을 그

대로 마운드에 내세운다. 롯데는 개막전 선발로 출격했던 사도스키로 맞불을 놔다.

올 시즌 롯데의 야심작 사도스키는 지난달 27일 넥센과의 개막전에 선발로 나서 5이닝 동안 5피안타(2홈런) 3탈삼진 3실점(1자책)의 투구를 선보였다.

사도스키는 시범경기에서 안정된 제구와 변화무쌍한 슬라이더를 선보이며 1선발을 꿰뚫었지만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한국무대 신입생.

윤석민은 검증된 에이스지만 올 시즌 첫 등판이다. 시범경기 도중 어깨 통증을 호소했던 윤석민은 우려와 달리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는 않았지만 실전감각이 다소 떨어진 상태다.

첫 경기에서 내서는 윤석민과 첫 등판에서 2010시즌 첫 피홈런의 불명예를 안은 신입생 사도스키. 아직 검증이 필요한 두 투수의 대결인만큼 2일 경기는 의외의 타격전이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

역시 한방 싸움이 눈길을 끈다. KIA는 최희섭·김상현의 'CK포'가 가동에 들어갔고, '끝내기의 사나이' 나지완의 한방으로 롯데보다 먼저 첫 승을 폼냈다. 롯데를 대표하는 거포 이대호·가르시아도 이미 손맛을 봤다. 중심타선의 파워싸움이 주말 무등경기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볼넷 싸움에서는 KIA에 좀 더 힘이 실린다. 롯데는 지난해 뒷문을 책임졌던 에킨스 대신 선발 사도스키를 선택했다. 확실한 마무리 부재속에 롯데는 앞선 두 경기에서 무려 24실점을 했다.

KIA는 불안한 출발을 했던 필승 계투진 광정철·손영민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다 마무리 유동훈도 견제해 불펜이 정상가동되고 있다.

서로를 제물로 한 KIA와 롯데의 '탈출전'이 주말 야구팬들을 기다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남도장터 홍보대사 됐어요”

나지완 홈런포 '남도장터 존' 통과해 위촉

나지완의 홈런쇼는 계속된다. 'CK포'로도 얻지 못했던 KIA 타이거즈의 시즌 첫 승에는 한국시리즈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 나지완의 한 방이 있었다. KIA 나지완은 지난달 31일 2010시즌 마수걸이 홈런으로 4-2승을 이끌며 3연패에 빠진 위기의 팀을 구해냈다.

끝내기 홈런으로 KIA의 2009시즌을 마무리했던 나지완이 팀의 2010시즌도 연 썬이다.

전날 열린 홈 개막전에서 3연타석 삼진을 당하며 고개를 숙였던 나지완은 이날 경기

에서 나홀로 3타점을 올리며 굶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했다.

맞는 순간 장외홈런이었던 시원한 홈런포는 한국시리즈 MVP 나지완의 견제를 과시하기에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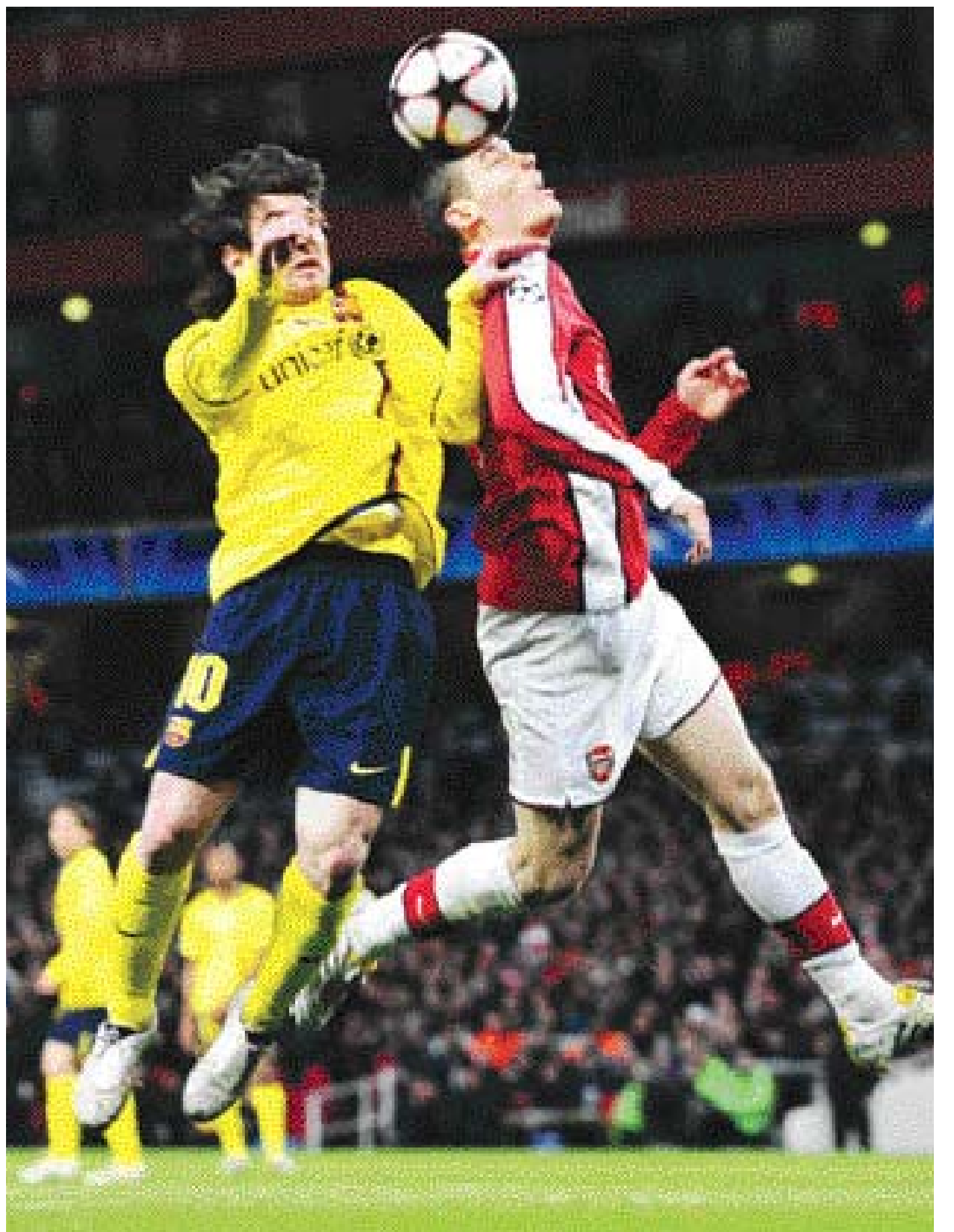
지난해 23개의 홈런포를 쏟아내던 나지완은 올 시즌 30개 이상의 홈런을 목표로 내걸었다. 개막 4경기만에 홈런양산에 들어간 나지완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홈런 하나 당 5만원을 성금으로 적립하기로 하는 등 올 시즌 '한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범현 감독도 "삼진을 당해도 좋으니 자신있게 풀스윙을 하라"며 나지완의 홈런에 이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팀에 귀중한 첫 승을 안겨준 영양가 만점의 한방으로 나지완은 전남도 소풍물인 남도장터 홍보대사의 영예까지 안았다. KIA는 올 시즌 전남도와 홈런포 운영협약을 갖고 외야 좌측펜스에 남도장터 홈런존을 설치했다.

가장 먼저 홈런존을 넘긴 나지완은 1호 시상금 200만원과 함께 남도장터 홍보대사에 위촉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일(한국시각)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FC 바르셀로나(스페인)와 아스널(잉글랜드)의 2009-201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왼쪽)가 아스널의 토마스 베르마엘렌과 공중볼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바르샤-아스널 난타전 끝에 무승부



8강 1차전 2대2

지난 시즌 유럽축구 챔피언 FC 바르셀로나(스페인)가 적지에서 아스널(잉글랜드)을 상대로 먼저 두 골을 뽑고도 뒷심 부족을 드러내며 결국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바르셀로나는 1일(한국시각)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201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원정경기에서 후반에만 두 골씩을 주고받은 끝에 2-2로 비겼다.

지난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의 대회 2연패를 좌절시키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바르셀로나는 오는 7

일 아스널을 안방으로 불러들여 2차전을 벌인다. 바르셀로나는 승리를 아깝게 날렸으나 원정에서 2골을 뽑으며 비겨 준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이날 후반에만 두 골을 사냥한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세 경기를 포함해 네 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조제 무리뉴 감독이 지휘하는 인터 밀란(이탈리아)은 CSKA 모스크바(러시아)와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홈경기에서 후반 20분에 터진 로베르토 밀리토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앗! 이럴수가~

마라도나 애완견에 입술 물려 수술
아들이 친 파울 타구에 어머니 맞아

○-디에고 마라도나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 감독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자신의 애완견에게 뒷입술을 물려 긴급 수술을 받았다.

현지 TN TV는 마라도나 감독이 자신의 집에서 사육해 애완견과 놀다가 다쳤으며 이갈이 보도했다.

마라도나 감독은 이날 오후 퇴원할 예

정이며 의료진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아들이 친 파울 타구에 어머니가 맞는 보기 드문 장면이 미국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나왔다.

미네소타 트윈스의 외야수 드나드 스펀은 1일(한국시각) 플로리다주 탬파의 조지 스타인브레러 필드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 경기에서 1회 선두타자로 나와 3루 더그아웃 왼쪽으로 공을 날렸다.

마침 이 공은 그곳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스펀의 어머니 완다 윌슨에게로 날아갔다. 공은 윌슨의 가슴 부위를 때렸고 파울타구를 맞은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스펀은 곧바로 상태를 확인하려 달려갔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다들 물어봐요! 다들 다들! 다들 다들!

www.kitr.com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충정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